

정신병적 경향성과 흡연 행동의 관계

연 미 영

증양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흡연 행동과 Eysenck의 성격 차원 중의 하나인 정신병적 경향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했다.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정신병적 경향이 높은 사람이 정신병적 경향이 낮은 사람보다 흡연 행동의 개시 연령이 빠르고, 하루 흡연량이 더 많으며, 금연하려는 동기가 낮은지를 검증하고자 했다. 전체 80명의 남성 피험자에게 아이젠크 성격 차원 검사를 실시해서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N=10)과 낮은 사람(N=17)을 구분한 후, 흡연 행동에 관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의 하루 흡연량이 정신병적 경향성이 낮은 사람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한편, 두 집단 간에는 비록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이 정신병적 경향성이 낮은 사람보다 흡연을 빨리 시작하고, 금연 시도 동기가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충동적인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흡연을 이용한다는 심리적 자원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아울러, 추후 연구에서 정신생리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금연을 위한 행동 지침이 논의되었다.

흡연은 현대 3대 사망원으로 생각되는 심장질환, 암, 뇌일혈의 발병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39만 명이 흡연으로 인한 직접, 간접의 영향에 의해서 사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2만 5천 명정도가 폐암을 비롯한 여러 암질환으로, 17만 명 정도는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이들 질병은 흡연에 의해서 발병되거나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흡연자는 많은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취약성을 나타내며, 비흡연자보다 사망율이 전체적으로 1.7배 높다.

흡연은 폐암을 비롯하여 신체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알려진 지금까지도 흡연 행동의 수정은 그리 쉽지 않다. 흡연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금연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도 많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흡연을 지속하게 하는 기제를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몇몇 연구가 실행되었다. 심리적으로 흡연은 불편감, 긴장,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 시도되고, 이런 흡연 행동은 대인, 사건, 장소 등과 연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흡연 행동의 지속에 대한 행동주의 접근은 이런 행동이 고전적 및 도구적 조건화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본다. 즉, 흡연 행동이 다양한 단서와 연합되고, 이후에는 그러한 단서에 의해 흡연 행동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금연의 어려움은 흡연이 신체적, 심리적 중독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흡연자의 신체적인 니코틴 의존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심한 니코틴 의존성을 가진 흡연자는 흡연하지 않고 밤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며,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흡연을 시작한다. 더우기 그들은 아플 때조차도 흡연을 시도한다. 이런

현상은 흡연에 대한 중독모델로 설명된다(Gross & Stitzer, 1989; Hughes, Gust & Pechacek, 1987; Hughes & Hatsukami, 1986; McNeill, West, Jarvis, Jackson & Bryant, 1986).

흡연 행동이 갖는 많은 문제와 건강에 대한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흡연 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흡연이 개인에게 주는 어떤 신체적, 심리적 이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 중에 하나가 흡연에 대한 심리적 자원 모델(psychological resource model)이다. 흡연에 대한 심리적 자원 모델을 지지하는 연구자(Edwards & Warburton, 1983; Edwards, Wenses, Warburton & Gale, 1985; Warburton, 1988; Warburton, Revell & Walters, 1988)는 흡연이 단순한 니코틴에 대한 탐닉이라기보다는 흡연자에게 어떤 심리적 이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Pritchard와 Kay(1993)의 흡연 동기에 관한 연구 결과는 흡연 행동이 중독 모델보다는 심리적 자원 모델에 의해서 더 적절하게 설명됨을 암시하고 있다.

흡연과 심리적 자원 모델과의 관련성은 성격변인의 측면, 특히 Eysenck의 성격차원 이론과 관련되어 연구되었다. 먼저, Eysenck의 성격 차원 중에서 외향성 차원과 흡연의 관계가 연구되었는데, 외향성자는 각성을 높이기 위해서 흡연을 하며, 내향성자는 각성을 낮추기 위해서 흡연을 한다. 이처럼 외향성 차원과 흡연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매우 상반되는 것이 많다.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진정 효과(calming effect)를 얻기 위해서 흡연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흡연은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에게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심리적인 안녕과 인지기능의 향상을 가져다 준다는 본다. 즉, 불안이 높은 사람은 흡연을 통해서 불안 각성을 낮추며, 이것은 흡연이 그들에게 주는 심리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흡연은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에게도 심리적인 이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Bass(1988), Jamison(1979), Lyvers, Boyd와 Maltzman(1982) 그리고 Spielberg과 Jacobs(1982) 등

의 연구는 흡연과 정신병적 경향성과의 관계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예로서, Golding, Harpur, 및 Brent-Smith(1983)의 연구에서 남성 흡연자의 정신병적 경향성 척도 점수가 7.37인 데 비하여 비흡연자는 4.17였고, 여성 흡연자가 5.14인 데 비하여 비흡연자는 3.55였다. Stanaway와 Watson(1981)의 연구 역시 아이젠크 성격 차원 검사와 흡연과의 관계를 연구했을 때, 정신병적 경향성 차원만이 흡연과 관련이 있었다.

Zuckerman(1991)은 정신병적 경향성과 세로토닌 수준과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세로토닌 수준이 낮음을 보고했다. 이런 결과를 개관하면서 Pritchard(1991)는 흡연과 정신병적 경향성의 관계를 심리적 자원모델과 관련된 세로토닌 가설로 설명하였다. 그는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이 그 하위 요인인 충동성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억제해 주는 심리적 자원으로 흡연을 이용함을 가정한다. 즉, 충동적인 사람은 생각 없이 행동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문제에 처하게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제지하도록 도와주는 흡연은 그들에게 유용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흡연과 관련된 충동성 행동의 제지는 뇌의 세로토닌 기체에 대한 니코틴의 간접적인 효과와 관련되어 있을 것임을 제안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흡연과 성격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난 30년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주로 Eysenck의 3개의 성격 차원에 관련해서 연구되었다. 연구자마다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정신병적 경향성과 흡연과의 관계성에 대해 강조하는 바가 다르고, 한 차원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흡연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상반되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나 정신병적 경향성과 흡연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결과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서 흡연자의 정신병적 경향성 척도상의 점수가 비흡연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신병적 경향성과 흡연과의 관계는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이 보이는 특징과 관련되어 설명되고, 그 중에서도 충동성과 강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Eysenck(1983)는 정신병적 경향성의 주요 하위 요인인 충동성이 흡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그들의 주요한 행동 특징 중의 하나인 충동적 행동을 제지하는 방편으로써 흡연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흡연을 통한 니코틴의 흡수가 충동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뇌의 세로토닌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즉,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그들의 충동적인 행동의 일시적인 제지를 위해서 흡연을 더욱 빈번하게 이용할 것이고, 더 일찍 습관적인 흡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들은 흡연을 통한 심리적 이득이 많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동기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흡연 빈도가 높고, 흡연 개시 연령이 빠를 것이며, 금연을 시도하려는 동기가 낮을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방법 및 절차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체 연구 대상자 80명 가운데 흡연을 하고 있는 정상 성인 남성 27명에게 성격차원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신병적 경향성 척도 점수를 기초로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집단(n=10)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n=17). 이 두 집단의 연령, 정신병적 경향성 척도, 외향성 척도, 신경증적 경향성 척도 및 허위 척도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여성의 흡연이 사회적 관념에 의해서 일상적인 행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흡연 행동의 유무, 개시 및 흡연 빈도가 성격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 연령 및 성격 차원 검사의 평균과 표준 편차

	정신병적 경향성 높은 집단(n=10)		정신병적 경향성 낮은 집단(n=17)		F 값
	M	SD	M	SD	
연 령	39.2	12.37	38.0	10.60	.07
P 척도	5.1	1.91	2.1	.72	32.51 ***
E 척도	11.2	3.64	11.2	4.49	.00
N 척도	14.7	4.02	13.8	3.41	.41
L 척도	8.6	4.22	8.8	3.33	.03

P 척도:정신병적 경향성 척도
E 척도:외-내향성 경향성 척도
N 척도:신경증적 경향성 척도
L 척도:허위성 척도
*** p<.0001

측정도구 및 실시

측정도구는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EPQ)를 Eysenck와 이현수가 표준화한 성격차원 검사(1985)와 함께 흡연 개시 연령, 하루에 흡연을 하는 담배의 개비, 금연을 시도한 횟수를 묻는 간단한 질문지를 사용해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였으며,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흡연 개시 연령, 하루 흡연량, 금연을 시도한 경험에 대한 변량분석을 했다.

결 과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흡연 개시 연령, 하루 흡연량, 금연을 시도한 횟수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두 집단의 흡연개시연령, 하루 흡연량, 금연을 시도한 횟수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정신병적 경향성 높은 집단		정신병적 경향성 낮은 집단		F 값
	M	SD	M	SD	
흡연개시연령	19.4	1.8	21.3	5.7	1.03
하루흡연량(개비)	28.5	13.8	13.6	8.4	12.32***
금연 시도 횟수	1.8	2.8	2.4	3.0	.27

*** p < .005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흡연을 시도한 연령에서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집단($M=19.4$)이 낮은 집단($M=21.3$)보다 빠르기는 했지만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25)=1.03, n.s.$). 하루 흡연량에서는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집단($M=28.5$)이 낮은 집단($M=13.6$)보다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F(1,25)=12.32, p<.005$).

금연을 시도한 횟수에서는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집단($M=1.8$)이 낮은 집단 ($M=2.4$)보다 적었지만,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25)=.27, n.s.$).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흡연 행동에 대한 심리적 자원 모델을 기초로 정신병적 경향성과 흡연 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 대상자는 성인 남성 흡연자로서 정신병적 경향성 척도상의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신병적 경향성 차원이 흡연 행동과 관련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하루 흡연량에 있어서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많은 흡연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흡연의 개시 연령도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일찍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이 흡연을 통해서 니코틴을 흡수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그들이 가진 행동 특징 중의 하나인 감각 추구를 위하여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연 시도 횟수에서의 집단 차이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측정치 역시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적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이 흡연 행동을 중단하려는 동기가 낮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병적 경향성과 흡연 행동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흡연은 다양한 상황

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행위이다. 흡연은 다양한 활동 즉, 신체적인 것, 인지적인 것, 스트레스적인 것 등과 함께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의 행동 및 생리적인 특징과 관련되어 논의될 수 있겠다.

흡연 행동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과 중독, 심리적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심리적인 자원으로서의 흡연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신병적 경향성 차원과 흡연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로 심리적 자원으로서의 흡연 기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다. 심리적인 자원으로서 흡연의 기능을 충분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흡연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과정의 탐색이 필요하다. 초기의 흡연 행동은 사회관습적인 압력과 호기심에 의해서 촉발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후에 흡연을 계속한다. 이 행동 역시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 많은 변량이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흡연에 대한 사회일반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고, 금연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금연에 대한 동기 역시 강하게 유발되고 있지만 실제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은 그리 크지 않다.

이런 시점에서 본 연구는 흡연이 유기체에게 어떤 자원으로써 이용되기 때문에 금연이 어려운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정신병적 경향성 차원은 Eysenck의 성격 차원 중에 가장 늦게 제안되었고, 아직 많은 논쟁의 여지를 포함하고 있다. Eysenck는 이 차원이 정서적 냉담함, 이기주의, 충동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정신병적 경향성에 대한 초기의 연구에서 이 척도상의 높은 점수가 정신병 환자들보다는 수감자들에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시적으로 정신병적 경향성 척도가 정신병질의 측정에 더 용이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안하게 했다(Powell, 1977). 하지만, 이 후의 연구(Hare, 1980, 1982; Raine, 1986)에 의하면 정신병적 경향성이 정신병질 자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충동성과

냉소주의에 더 적절한 지표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로토닌 체계는 충동성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을 매개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다양한 종의 외현적인 행동제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흡연과 관련된 충동성의 감소 효과는 뇌의 세로토닌 체계에 대한 니코틴의 효과와 관련되어졌음을 시사한다.

흡연과 세로토닌 체계의 관계는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에 대한 니코틴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Gilbert, Robinson, Chamberlin, 및 Spielberger(1989)가 수행한 흡연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없는 조건에서 정상 니코틴 함유 시가의 흡연은 흥분 효과가 있었고, 스트레스 조건에서는 진정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들의 연구 결과는 니코틴이 뇌의 두 영역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스트레스의 조건에서 흡연은 우반구의 진정 효과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 체계의 국재화와 관련된 것이며, 흡연이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O'Conner(1993)와 Armitage(1978)의 연구는 흡연이 심박율을 급상승시켰음을 보고했고, Jarvik(1973)은 흡연이 일시적으로 심박율을 급상승시키지만 이런 니코틴의 효과는 최대로 1시간 정도의 지속 효과 밖에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Knott(1985)은 흡연이 과제 수행조건에서 뇌의 전기활동 중에 P₁반응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며, 감각 저장에서 니코틴의 촉진 효과가 있음을 제안했다. 또한 경고 자극에 대한 청각유발 전위 중에서 N₁반응은 흡연에 의해서 증가되었다(Knott, 1986). Lyvers 등(1988)의 연구는 흡연 특히 니코틴이 수의적인 지향 반응을 조절하는 전두엽에 변별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들의 연구는 흡연이 특정한 소리 자극과 일반적인 소리 자극에 대한 피부전기저항(SCR)의 증가를 보여줌을 보고했는데, 이는 흡연이 일반 각성과 선택적인 각성 모두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반영한다.

흡연은 뇌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되었고, 교감

신경계와 활동과도 관련되었음을 시사하는 연구(Ward, 1990)가 제시된 바 있다.

이는 정신병적 경향성과 다양한 과제 상황, 그리고 흡연과의 관계가 정신생리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더욱 타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흡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 것은 비록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반면에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흡연 행동의 수정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Williams와 Knight(1994)은 흡연 행동이 흥분을 유발하는 자극으로써 또는 이완제로 이용되거나 의례적 또는 습관에 의해서 발생하며, 이런 흡연 행동의 형태를 분류하는 것이 금연에 성공하는데 유용한 정보임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의 제안처럼 흡연이 사람들에게 어떤 자원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흡연에 대치될 수 있는 새로운 자원-가벼운 운동이나 이완-의 개발이 금연에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아이젠크, 이현수(1985). **성격차원검사**.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 이현수(1989). **성격 및 개인차의 심리학**. 서울, 우성 문화사.
- 이현수(1993). 성격 차원으로서의 정신병적 경향성 (II). **성격 및 개인차 연구**, 2, 59-71.
- Armitage, A. K. (1978). The role of nicotine in the tobacco smoking habit. In R. E. Thornton (Ed.), *Smoker behaviour*. London: Churchill Livingstone.
- Bass, C. (1988). Personality correlates of smoking behaviour in man with heart diseas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 397-400.
- Edwards, J. A., & Warburton, D. M. (1983). *Smoking, Nicotine, and Electrodermal*

- Activity. *Pharmacology Therapy*, 19, 147-164.
- Edwards, J. A., Wenses, K., Warburton, D. M. & Gale, A. (1985). Evidence of more rapid stimulus evaluation following cigarette smoking. *Addictive Behaviour*, 10, 113-126.
- Eysenck, H. J. (1983). A note on "Smoking, personality, reason for smoking". *Psychology and Medicine*, 13, 447-448.
- Eysenck, H. J. (1985). Stress, personality, and smoking behaviour. In C. D. Spielberger & I. G. Sarason (Eds.), *Stress and Anxiety Vol. 9*. Washington: Hemisphere.
- Gilbert, D. G., Robinson, J. H., Chamberlin, C. C. & Spielberger, C. D. (1989). Effects of smoking/nicotine on anxiety, heart rate, and lateralization of the EEG during a stressful movie. *Psychophysiology*, 26, 311-320.
- Golding, J. F., Harpur, T. & Brent-Smith, H. (1983). Personality, drinking, and drug taking correlates of cigarette smok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 703-706.
- Gross, J., & Stitzer, M. L. (1989). Nicotine replacement: Ten-week effects on tobacco withdrawal symptoms. *Psychopharmacology*, 98, 334-965.
- Hare, R. D. (1980). A research scale for the assessment of psychopathy in criminal popul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 111-120.
- Hare, R. D. (1982). Psychopathy and personality dimensions of psychoticism,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 35-42.
- Hughes, J. R., Gust, S. W. & Pechacek, T. F. (1987). Prevalence of tobacco dependence and withdrawal.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4, 205-208.
- Hughes, J. R. & Hatsukami, D. (1986). Signs and symptoms of tobacco withdrawa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 289-294.
- Jamison, R. N. (1979). Cigarette smoking and personality i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Psychology Reports*, 44, 842.
- Jarvik, M. E. (1973). Further observations on nicotine as the reinforcing agent in the smoking habit. *Smoking behavior motives and incentives*, 10, 629-638.
- Knott, V. J. (1985). Tobacco effects on cortical evoked potentials to distracting stimuli. *Neuropsychobiology*, 83, 82-87.
- Knott, V. J. (1986). Tobacco effects on cortical evoked potentials to task stimuli. *Addictive Behaviours*, 11, 219-223.
- McNeill, A. D., West, R. J., Jarvis, M., Jackson, P. & Bryant, A. (1986). Cigarette withdrawal symptoms in adolescent smokers. *Psychopharmacology*, 90, 533-536.
- O'Conner, K. (1993). Smoking, heart rate and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225-232.
- Powell, G. E. (1977). Psychoticism and social deviancy in children. *Advances i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 27-56.
- Pritchard, W. S. (1991). The link between smoking and Personality: A serotonergic hypothe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1187- 1204.
- Pritchard, W. S. & Kay, D. L. C. (1993). Personality and smoking motivation of U.S. smokers as measured by the state-trait personality inventory, the EPQ, and Spielberger's smoking motivation questionnai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629-637.
- Raine, A. (1986). Psychopathy, schizoid personality

- and borderline/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 493-501.
- Stanaway, R. G. & Watson, D. W. (1981). Smoking and personality: A factorial study.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 213-214.
- Spielberger, C. D. & Jacobs, G. A. (1982). Personality and smoking behaviour.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 213-214.
- Ward, M. M., Swan, G. E. & Jack, L. M. (1990). Twenty four hour ambulatory monitoring of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before and after smoking cessation. *Psychophysiology*, 27, 573.
- Warburton, D. M. (1988). The functional use of nicotine. In N. J. Wald & P. Froggatt (Eds.), *Nicotine, smoking and the low tar programm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arburton, D. M., Revell, A. & Walters, A. C. (1988). Nicotine as a resource. In M. Rand & K. Thurau (Eds.) *The pharmacology of nicotine*. IRL Press.
- Williams, B. K. & Knight, S. M. (1994). *Healthy for Life; Wellness and the Art of Living*.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Woodson, P. P., Batting, K., Etkin, M. W., Kallman, W. M., Harry, G. J., Kallman, M. J. & Roscerans, J. A. (1982). Effects of nicotine on the visual evoked reponse. *Pharmacology, Biochemistry, and Behavior*, 17, 915-920.
- Zuckerman, M. (1991). *Psychobiology of Person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Relationships between Psychoticism and Smoking Beha

Mi-young Yeo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sychoticism of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PQ) and smoking behaviours. Subjects were divided into a Higher Psychoticism group (HP, N=10, M=5.1) and a Lower Psychoticism group (LP, N=17, M=2.1). Subjects were asked to respond to a questionnaire on smoking behavior pattern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subjects in HP began smoking earlier, were smoking more frequently, and showed lower motivation for abstinence than subjects in LP did. It was suggested that HP-subjects' smoking behavior be regarded as a psychological resource which inhibits impulsiveness. Discussion is focused on the need of psychological study of smoking and ways to stop smoking.